

肉鷄流通問題와 改善方案

— 屠鷄規制에 따른 問題點을 中心으로 —

許 信 行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주 주립대 경제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 농업 및 응용경제학 박사
농업정책 및 농업발전론 전공
현 농촌경제연구원 가격정책 연구실장
전화 : 965 - 4785

- …몇백년 동안의 오랜전통중의 하나이자 우리의 생활습관인 생계판매나 구…○
- …입이 하루아침에 법에 의해서 바꾸어 질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한…○
- …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이며 우리를 안고있는 것이다. …○
- …그러면 단계별기간을 몇년 또는 몇개월로 설정할것인가? 그에 대한 해…○
- …답은 서울시 당국 또는 관계부처와 생산자 단체나 각종 유통 기관들이…○
- …소비자 계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어…○
- …떤사람의 임의대로 정해져서는 안될것이다. (본문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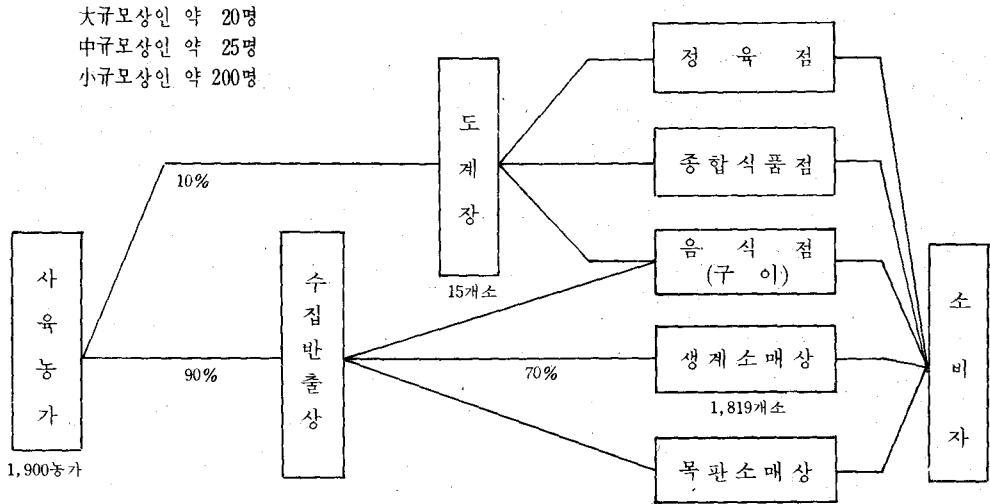
서울시에서는 4월 1일부터 생계(生鷄) 판매금지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닭고기유통개선을 위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서울시 육계판매량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생계상인들이 개점휴업을 한채 한달이 지나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게 되자 생산자는 말할것도 없이 소비자도 상당한 충격속에서 양계생산과 소비의 전망에 대하여 깊은 우려에 잠기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필자는 서울근교에 있는 생산농가로부터 시작하여 육계의 유통경로를 추적조사 함으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에 따라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육계유통현황

서울시를 중심으로한 닭 및 닭고기의 유통경로는<그림1>과 대략 같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서울시 근교에 자리잡고 있는 1,900여 전기업양계농가(專企業養鷄農家)로 부터 사육된 생계의 약 90%가 중간 수집반출상(蒐集般出商)을 거쳐서 70%정도는 1,820여 개소의 생계소매상(生鷄小賣商)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되고 있다. 나머지 20%정도는 음식점이나 구이집 그리고 목판소매상(木板小賣商)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전체육계 가운데서 약 10%정도만이 일반도계장(一般屠鷄場)을 통하여 정육점이나 종합식품점 그리고 음식점등에 배달되

〈그림 1〉 서울지역 닭 및 닭고기 유통경로



고 있는 실정이다. 육계유통과정에서 오랜동안 일해온 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수집반출상 가운데는 대규모 중간상인이 약 20명 정도 있다고 하여, 중규모 상인이 약 25명, 그리고 소규모 오토바이 상인들이 약 200명 정도 수집분산(蒐集分散)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수집반출상들은 서울시 387개소의 시장에서 생계를 팔고 있는 1,819개소의 소매점포에다가 하루 평균 성수기(盛需期: 5~7월)에는 약 23만수, 비성수기(非盛需期)에는 15만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4월 1일 이후부터는 생계 판매의 단속과 수집반출상들의 농성으로 하루 평균 불과 5만수 내외가 서울시 소비자를 위하여 공급되고 있을뿐이다.

생계판매경로의 유통마진을 보면, 안양생산농가에서 생체 kg당 800원에 팔려 중간수집반출상이 100원정도 취득하고 소매상이 300~400원정도 마진을 얻게 됨으로서 생

산농가 수취율은 62~67%이며 kg당 총마진액은 400~500원으로 나타났다.

만일 육계 한마리가 2kg에 해당한다고 하면 수당(首當)총유통마진액은 1,000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다가 시장생활에 서투른 새색시가 상술에 노련한 생계상인으로 부터 '바꿔치기'나 '저울 누르기' 라도 당하는 날이면 물량 유통마진이 가산되어 마리당 유통마진액은 1,000원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 가정주부의 센스와 생계 소매상인의 요령간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마진액 게임때문에 고달픈 하루의 도계(屠鷄)행위가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어느 대규모상인의 토로(吐露)는 귀담아 들어 둘 내용이라 생각한다.

2. 肉鷄流通의 問題點

육계 유통질서가 4월 1일 이후 마비상태에

돌입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서울시 행정당국이 위생적인 닭고기의 처리공급을 위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장정비 및 환경위생을 향상 시킨다는 목적아래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발동시켜 밀도계(密屠鷄)를 단속함은 물론 생계판매를 금지하고 검사제도를 강화하는데서 발단되었다.

이에 따라 1,800여명의 생계판매상인들이 영업행위를 중단하게되자 양계산업은 극심한 불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생계상인들이 서울시의 도계규제(屠鷄規制)에 반발하고 나선 배경을 보면, 첫째 소비자의 대다수인 77%가 생닭을 직접보고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문화인의 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소비행위이지만 깊숙한 밑바닥에는 불신(不信)이라는 잠재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인데 실제 소비자 조사에서 죽은닭이나 병든 닭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생닭을 원하는 경우가 67.5%나 되었다. 그리고 도계된 냉동닭은 맛이 없기 때문에 생닭을 원하는 소비자는 10.4%로 밝혀졌다.

생계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선 둘째 이유는 현재 서울시와 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15개의 도계장(屠鷄場)을 8시간이상 가동시켜도 불과 89,000마리 정도를 위탁도계(委託屠鷄)할 수 밖에 없는 관제로 수집반출상들이 생닭을 맡겨 도계품을 찾아 갈 수 있기 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계농가에서 소매상으로 생닭을 직송(直送)하던것을 이제는 먼 번두리에 위치하고 있는 위탁도계장을 거쳐돌아가야하기 때문에 시간도 문제이지만 교통에 드는 깨소금과 도계수수료(마리당 80원)그리고 세금까지 부과하므로 필요이상의 유통비용이 과다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손해나게 한다는 것이다.

생계상인들이 말은하지않고있지만 제3 자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계상인 불

만의 세번째 이유는 도계품 진열용 냉장 및 냉동시설비용이 과다하고, 앞에서 언급한 생계소매상인의 부당 물량마진 취득의 원천이 없어짐에 따라 생계(生計)에 위협을 받지 않을까 하는 강박관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시가 밀도계규제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지난 2월에 발표함에 따라 일반도계장(예:영육, 대원, 동신등)들은 생닭의 수집(蒐集)과 도계의 분산망(分散網)을 구축해 오고 있다. 영육같은 대규모 도계장은 양계농가와 10만수 이상의 제약생산(契約生産)을 체결한바 있고 기존의 생계상인들로 하여금 도계품 대리점을 떠 말도록 설득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개 모집을 시도중에 있다. 그리고 닭의 부분육과 냉동닭의 위생적인 처리로 자체상표를 붙여 슈퍼마켓과 백화점같은 종합식품점에 공급하여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하루 1,000마리 정도).

3. 生鷄 販買規制時 問題點

서울시가 생계판매를 금지 또는 강력하게 단속할뿐만 아니라 간이도계장(簡易屠鷄場)을 상가지역에 허용치 않고 일반도계장에서 위탁도계토록 규제하는 경우 육계유통상 중요한 몇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첫째 문제는 성수시(盛需期)를 맞아 육계소비량이 격감하게 될것이 예상되므로 양계업의 불황은 더욱 극심화될 위험성이 있다. 둘째 문제는 밀도계(密屠鷄)행위가 음성적(陰性的)으로 조직화되고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위탁도계수수료와 수송비 냉장시설비 등 유통비용이 과다하고 생계거래를 위한 암거래 시장형성으로 소비자 지불가격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 질 것이다.

넷째, 문제는 양계농가와 도계장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체(媒介體)가 없어지기 쉬

운 관계로 생산자의 판로가 막히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도계장과 소매상의 경로도 다양하지 못하여 소비자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판매촉진의 결여로 닭고기 수요가 격감될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약 2,000농가를 상대로 하는 대형 도계장이 불과 3개이며 간이도계장까지 합하여 15개인데 이들 소수도계장에 의한 수요독과점(需要獨寡占) 발생 우려가 짙다는 사실이다. 도계장에 의한 수요독과점이 생기면 완전경쟁생산체제(完全競爭生産體制) 아래 있는 수많은 양계사육농가들의 가격협정시 불리성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매상들에게는 판매독과점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당국은 이점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生鷄流通體系 存續時 問題點

1976년의 1차 시도때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서울시가 또다시 축산물 가공처리법 실시를 보류하여 전통적인 생계유통을 계속 허용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위생적인 닭고기가 계속 판매 됨으로서 닭고기에 대한 장기 수요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생계구입을 원한다고 해서 가정주부들이 살아 있는 닭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좋아 하거나 더러운 물속에서 닭털을 뽑아 내는 것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죽은 닭이나 병든 닭을 사지 않겠다는 의지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가정주부 이외의 사람들은 닭이 어떻게 죽고 뜯기는가를 보지 않고 닭고기요리만을 먹기 때문에 맛있다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닭을 사러나간 가정주부들은 닭고기 맛을 다 잃어 버린지 오래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유통행위는 장기

적으로 양계산업의 발전을 저해 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영양공급에도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생계판매가 존속되는 경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간상인의 물량마진이 과다하여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서 결국 양계생산자의 고객인 일반소비자를 쇠고기나 돼지고기 그리고 수산물 소비에로 빼앗기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통마진면에서 생계유통판매가 도계유통판매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 없는 관계로 위생적인 도계시장유통의 건전한 개발을 지연시키지나 저해하는 모순을 안게 될 것이다.

5. 改善方案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강력하게 발동시켜 생계판매를 일소한다 해도 문제는 심각하고 그렇다고 비위생적인 생계유통을 언제까지나 방치해 둘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양계사육이나 유통, 판매, 그리고 소비행위가 모두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몇백년 동안의 오랜전통중의 하나이자 우리의 생활습관인 생계판매나 구입이 하루 아침에 법에 의해서 바꾸어 질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이며 무리를 안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이건 간에 소비자의 77% 이상이 생계를 직접 확인하면서 사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과 구입행위가 먼저 바뀌어 지게끔 서울시는 물론 양계생산자 단체나 상인단체들이 앞장서서 각종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위 건전한 의미의 소비자교육을 일정기간동안 실시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계몽기간을 몇달이나 일년정도로 너무 조금하게 설정하지 말고 여유있게 세워 소비자의 뿌리

〈표 1〉 육계유통개선의 단계적인 계획과 추진안

구	분	1 단계추진	2 단계추진	3 단계추진
소비자 교육		—————>	----->	----->
생산자 종합에 의한 도계장 설치		—————>	—————>	
일반도계장 설치확대		—————>	—————>	----->
간이도계허가		—————>		
생계판매금지			----->	—————>
위생도계거래		----->	----->	—————>

주 : —————> 강력추진
 -----> 추진질성

깊은 불신을 충분히 씻어 낼 수 있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계몽과 병행하여 양계생산자 단체들로 하여금 자체 도계장을 설치토록 권장함으로써 소수 도계장에 의한 수요독과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도계장 설치를 확대하여 도계장간의 경쟁력을 제고 시켜야 생산자보호는 물론 소비자 보호도 함께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기 조치의 일환으로(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간이도계장 설치를 상가지역에도 일정기간동안 허용하되 2년이라고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생계구입 선호행위(選好行爲)가 감소되어 질 때까지 존속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생계구매형태로 몇백년 동안 살아 왔는데 무엇이 급해서 2개월에 그리고 2년동안에 모든 유통행위를 일시 전환시키려 하는가? 빨리 가려고 재촉하다가 더 늦게 가게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단계추진에 가서는 생계판매를 점진적으로 금지하다가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고 위생적인 도계품이 대량으로 공급되면 3 단계에

서 생계유통판매를 완전하게 금지하여 일소시키는 강력한 규제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단계별 기간을 몇년 또는 몇개월로 설정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서울시 당국 또는 관계부처와 생산자단체나 각종 유통기관들이 소비자계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어떤 사람의 임의대로 정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한 단계를 최소한 1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성공하는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나 습관적인 행위가 그와 같이 빠른 시간내에 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가 발전하고 양계생산이 전문화 되어 가면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산자와 가공처리장간의 계약생산체제가 이루어 지게 될 것이며, 중간상인들의 유통마진이나 수요독과점형태를 막기 위해서는 생산자조합의 공동도계 및 판매기능도 개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신들의 보호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느냐에 따라 육계유통의 개선은 좌우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 원래는 16개이지만 양주도계장은 군납만을 위한 것으로 위탁도계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시켰음.